

# 뒤틀린 페미니즘 성평등 해답 찾기



박화연 작 '로코로에 대하여'

## 광주여성재단 내년 3월 16일까지 '이꼴을 하고서'전

박화연·정유승

청년여성작가 2명

남성중심사회 고발

편견 깨기 대안 제시

정유승 작 '당신을 위한 것'



여: "요새 너무 고민이야. 막상 결혼하러 나가 결혼비용은 둘째치고 남자 월급이 너무 적어. 이리다 입에 풀칠하겠어?"  
 남: "너 월급은 얼마데?"  
 여: "나야 여자니까 적게 받지. 그래서 남자 월급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중략)  
 남: "모아놓은 돈은 있니?"  
 여: "없지."  
 남: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서 왜 집 타령이야? 집 장만은 같이 하는 거지."  
 여: "집은 남자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청년작가 정유승씨의 설치작품 '당신을 위한 것'에 담겨있는 남녀 간 대화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돈을 더 잘 벌어야 하고, 결혼할 때 신혼집은 남자가 장만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 같은 대화는 유별난 일일까, 아니면 흔한 경우일까.  
 이처럼 여성혐오와 성적 불평등으로 얼룩진 질문들을 시작으로 성평등에 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기획전시 '이꼴을 하고서'가

광주여성재단 내 8층 여성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시 제목 '이꼴을 하고서'는 '젠더 이퀄리티(성평등·Gender equality)'적 시각을 지향하는 언어이자 소극적 목소리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비판하는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꼴'을 하고 있는 우리지만, '이꼴'을 향해 나아가자는 뜻이다.  
 전시장에는 각종 혐오와 불평등으로 왜곡된 페미니즘의 실태를 고발하고 풍자하는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성평등적 페미니즘의 가치를 공유하자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취지다.  
 참여작가는 박화연, 정유승씨 등 유망한 2명의 청년여성작가다. 이들은 2018광주비엔날레의 최연소 참여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유승 작가는 "당신을 위한 것"이란 제목으로 5채널 영상을 가변설치해 선보인다. 작품에는 평등의 본질을 흐리는 역명의 발언들이 다양으로 배포되면서 개인과 사회가 불평등의 개념 속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담아낸다. 실제로 작품은 인터넷 상 카카오톡을 배경으로 한 가상의 대화로 구성돼 있다. 총 5개의 채널 중 4개의 채널은 두 화자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시각으로 텍스트를 작성한다. 반대로 1개의 채널에서는 평등을 주제로 이해와 배려에 기초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두 사람의 가상대화에서 '그룹채팅'은 대화를 지켜보고 있으나 응답할 수 없는 침묵의 목적자로 상징돼, 관객이 초대받았음을 의미한다.  
 박화연 작가는 '로코로에 대하여'라는 제

목의 영상작업을 내걸었다. 현재 내 안에 고착화 된 성 혹은 성의 역할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을 대하는 방식으로 김바다의 꺾꽂이를 제거하는 그녀는 손톱이 닳고 살갗이 쏠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박 작가는 그 경험이야말로 단단하게 굳어 있는 성적 편견을 완벽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가정 내에서 딸로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교육받고 학교와 회사 등 사회생활을 통해 부단히 학습해온 '여성적'이라는 것과 '여성성'이라는 것이 결국 남성 중심 사회가 낳은 강요라는 것을 역설하는 셈이다.  
 집요하게 강요받아온 학습의 따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생체기를 내야 한다는 것. 박 작가는 끝내 강요와 학습으로 왜곡된 성적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생체기를 내 피를 흘리며 고통을 겪자고 제안한다.  
 이외에도 두 작가는 '이꼴을 하고서'를 영문으로 새긴 반팔티 등을 매개로 설치작품을 제작해 관객과도 소통한다. 반팔티는 다양한 참여 경로를 통해 만나서 관객들에게 선물로 제공한다.  
 지난 15일 개막식날 진행된 편견을 암시하는 단어들을 숨긴 풍선들을 내걸고 다트로 터트리게 한 체험프로그램은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전시는 내년 3월 16일까지 열린다. 문의 062-670-0535.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바리톤 문주환 귀국 독창회

내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베이스 바리톤 문주환이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귀국독창회를 연다.  
 이번 독창회는 브람스의 '4개의 엄숙한 노래', 슈베르트의 '마부 크로노스에게', 쇤베르크의 '오딘의 바다 기행', 로시니의 오페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중 '이탈리아 여인들은...',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중 '해! 늦진 않았어',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눈을 뜨고 잘 보라', 베르디 오페라 '돈 카를로' 중 '그녀는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았네' 등 독일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로 무대가 꾸며진다. 반주는 부인인 피아니스트 김은애씨가 맡는다.  
 베이스 바리톤 문주환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오스카르 비엔나로 유학, 프라이너 음악원 오페라과를 수석졸업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베르디 갈라 콘서트를 가졌으며, 멕시코 5개도시에서 모차르트 오페라 '바스티앙과 바스티엔', 오스트리아 빈 우라니아 극장과 유엔센터에서 오페라 '춘향전', 오스트리아

아 스타이어 야외무대에서 푸치니의 '나비부인' 등에 출연하는 등 오페라 10여편에서 조역 및 주역으로 공연했으며, 오페레타와 갈라콘서트 100여회에 출연했다.  
 귀국 후 광주 오케라단에서 '카발레리아 리투르니카' 공연에 참가하는 등 전문 성악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립합창단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교육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성악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전석 2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010-6331-6834.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미협 새 회장 광수봉 작가 선출

한국화가 광수봉(사진) 작가가 제11대 광주미협협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17일 광주미술협회는 지난 16일 광주 일고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미술협회 회장 선거에서 광 작가가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지난 봄부터 일지감지 출마 의사를 밝히고 표발을 다져온 광 작가는 이날 선거에서 모두 401표를 획득, 286표를 얻은 서양화가 김영화 작가를 제쳤다.  
 호남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광 신임회장은 현재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광주시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화합하는 열린 미협, 삶이 풍부한 복지 미협, 변화된 행동하는 미협을 캐치 프레이즈로 내건 광 신임회장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예술의 거리 전시 및 지역 거점 활성화, 미협 발전 추진위 구성, 메세나 강화, 분야별 이사회와 분과위원장 권한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임기는 4년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뭇생기다' 형용사서 동사로 변경

국어원 5개 단어 품사 수정

'뭇생기다', '잘생기다' 등 어휘가 형용사서 동사로 변경됐다. 또한 '뻐지다', '생기다' 등 어휘 또한 보조 형용사에서 보조 동사로 변경됐다.  
 국립국어원은 최근 표준국어대사전 수정내용을 공개하면서 5개 단어의 품사를 형용사에서 동사로 수정했다. 이 같은 변경으로 '낡다', '뭇나다', '뭇생기다', '질나다', '잘생기다' 등 5개 어휘 품사는 동사로, '터지다', '생기다',

'뻐지다' 등 3개 어휘 품사는 보조 형용사에서 보조 동사로 바뀌었다. 또한 그간 일반인들이 문제를 제기해 온 효과의 발음으로 '효과'를 인정했다.  
 국립국어원은 "형용사의 어간에 '-었-'이 결합하면 과거의 의미가 드러나는 데, 이 단어들은 '현재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품사를 동사로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잘생겼다'가 과거가 아닌 현재를 의미하므로 동사라는 것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형동 전남문인협회장 시집 '여섯마을 풀꽃들의 이야기' 출간

전남문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형동 시인이 10년만에 그 동안의 창작시들을 모아 '여섯마을 풀꽃들의 이야기'(한림)를 출간했다. '풀꽃마을' '바보마을' '우리마을' '별레마을' '하늘마을' '시인마을' 등 여섯 마을을 주제로 생명 존중과 자연 사랑이라는 고전적인 주제가 서정적인 언어로 형상화돼 있다.  
 시인은 '풀꽃'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네며 자연이 주는 넉넉한 품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한다. '바보마을'에서

는 바보를 이상적인 삶으로 설정한 자신의 바보스러운 삶을, '하늘마을'에서는 신앙을 소재로 한 절대자에 대한 간구와 소망을 노래한다. '시인마을'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상사회를 노래함으로써 시적 경계를 확대한다.  
 시집에는 오욱례 사진작가의 다양한 꽃사진과 박 시인 자신이 찍은 사진이 수록돼 있어 보는 맛도 쏠쏠하다.  
 백수인 조선대 교수는 "박형동은 시적 발화장치를 통해 우주를 지아와 서정적으로 동일화하

는데 아주 탁월하다. 타자의 시선으로 자아를 바라봄으로써 타자를 다른 자아로 읽어내고 있다"며 "그의 시에서 흐르는 것은 화해와 긍정, 자족과 감사라고 하는 삶의 태도"라고 평했다.  
 한편 장성 출신 박형동 시인은 1996년 '문학춘추'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왔다. 지금까지 시집 '내나의 뒷모습' '바보의 노래' '겉대기를 위한 향연' 등을 펴냈으며 문학춘추작가회장, 시류문학회장, 장성문협회장을 역임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